무소속 돌풍지대…신화 이어질까

6·13 지방선거 표밭 점검

■장성군수

장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신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장성은 무소속 돌풍지대였다. 민선 2기 김흥식, 4기 유두석, 재보궐 이청, 6기 유두석 군수가 무소속이었다.

정당 지지도가 고공행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시석 후보와 현직 군수 프리미엄이 있는 무소속 유두석 예비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다.

유두석 후보는 지난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유 후보의 군수 도전은 이번이 사실상 다섯번째다.

그는 '오로지 군민, 오로지 장성'을 슬로건으로 "군민만 생각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단체장을 뽑는 기준은 정당이 아닌, 검증된 능력과 인물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고 재신임을 호소하고 있다.

유 후보는 그동안 네번의 군수 선거를 치르면서 다져진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가 강점이다.

국토교통부 이사관(2급) 출신 정통관료로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두터운 중앙 인맥도 갖추고 있다.

그는 2대 역점사업으로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 성공을 바탕으로 황룡강 일대 국가정원 지정 ▲국립심혈관센터 완공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치유도시 구축을 내걸었다.

또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중학교 해외 역사탐방 실시, 청년수당 지급, 등하교시 100원 택시 확대 운영, 중고교생 교복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고려시멘트 공장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작목별 농업소득 향상, KTX 장성역 정차 실현, 북이 사거리시장·백양사 활성화 등도 공약했다.

무소속 현 군수에 맞서는 민주당 윤시석 후보는 연거푸 3선을 한 전남도의원 출신이다. 전남도의회 부의장·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역임, 풍부한 지방자치 역량을 쌓았다. 12년 간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며 넓혀온 인맥도 강점이다.

윤 후보는 낙후한 장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군수'가 필요하다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이개호 의원으로 이어지는 황금 인맥을 활용해 장성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는 선거 1호 공약으로 '전국 제일의 교육환경 조성'을 내걸었다. 어린이집 야간 보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장성장학회 기금 대폭 확충, 고교 수업료 단계적 전액 지원, 고교 교과서 비용 지원, 에듀버스(중·고교 통학버스) 지원, 직업·진로체험 학습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어르신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성 ▲농촌이 부강한 장성 ▲장성 뉴딜사업 추진 ▲문화관광·치유힐링 중심도시 구축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투명행정 등을 목표로 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수 후보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름(나이)	유두석(68)	윤시석(56)
주요경력	장성군수	전 전남도의원
주요공략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국립심혈관센터 완공·치유도시 구축 ·등하교시 100원 택시 확대 운영 ·고려시멘트 공장에 주택단지 조성 ·KTX 장성역 정차 실현	·일자리 확대로 어르신 용돈 해결 ·청년수당 월20만원 지급 ·지역화폐 100억원 발행 유통 ·축령산 세계힐링관광엑스포 개최 ·수도권 기숙사 '장성학숙' 건립

무소속 유두석-민주 윤시석 양자대결

"검증된 인물" 對 "힘 있는 여당 군수"

1선거구 민주-무소속, 2선거구 민주-평화 맞대결

■전남도의원(장성)

장성 전남도의원 선거는 민주당 대 비민주당 구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은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다.

제1선거구(장성·서삼·북일·북이·북하)에서는 민주당 유성수 후보와 무소속 정철 예비후보가 맞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뚫고 후보가 됐다. 유 후보는 경선에서 36.83%를 득표, 2위 김병권(34.61%)·3위 이원영(31.91%)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어렵게 후보가 된 만큼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다.

정치 신인으로서 참신성이 강점이다. 약사인 유 후보는 "지역간 상생·통합을 선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도시발전, 사람이 넘치는 관광도시 장성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장성고 총동문회 부회장·전남도유도회 부회장·바르게살기 장성군협의회 청년회장 등을 맡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전남형 청년교육권 조례 제정, 청년 근속장려금 확대 지원, 40·50세 희망 일자리 장려금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제2선거구(진원·남면·동화·삼서·삼계·황룡)에선 민주당 김한종 후보와 평화당 임강환 후보가 경쟁한다.

김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58.73%를 획득, 현역 도의원인 이준호(41.27%) 의원을 꺾고 후보가 됐다. 재선 도의원과 전남도생활체육회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믿음의 정치, 생활 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한국농업경영인 장성연합회장과 전남도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농업인이다. 그는 "책상에 앉아 군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닌 농업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 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유성수(49·민·터미널종로약국 약사) 정 철(45·무·전남도유도회 부회장)
제2선거구	김한종(64·민·전 전남도의원) 임강환(54·평·전 한국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장)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무=무소속

'오월 항쟁의 현장' 다시 선 5·18 사형수 김종배 광주시장 후보

"27일 '희생자 시민장' 무산 평생의 恨"

"1980년 5월 27일 새벽, 17명의 시민군이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것은 5·18이 절망과 실패로 끝나버린 항쟁이 아니라 '투쟁의 역사,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게 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17일 오후 2시, '5·18 사형수' 김종배(64) 전 국회의원이 '항쟁의 현장'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다시 섰다. 한창 5·18민주화운동 38주기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는 금남로를 걸으며 김 전 의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기억은 생생했다. 계엄군의 탈환 작전에 목숨을 잃은 동지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최후의 순간까지 총을 들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떠올렸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5월 27일 박남선 상황실장과 함께 전남도청 식당 지하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 200여명의 시민군에게 나눠줬다"면서 "새벽 3시 30분이 되니 도청 후문 쪽으로 군인들이 밀고 들어와 30분가량 교전이 계속됐고, 1층과 2층으로 차례대로 계엄군이 밀고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당시 2층 부지사실에서 김윤기, 안길정 등과 함께 항전하던 김 전 의원은 3층까지 쫓긴 뒤 계엄군에게 붙잡혔다. 그는 "당시 도청을 지키고 있던 시민군은 모두가 계엄군의 진입을 알고 있었다"며 "시민군들은 사실상 목숨을 내던지고 도청에 남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긴박했던 27일 새벽, 광주 도심에 울려퍼졌던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가두 방송 원고도 직접 썼다고 했다.

5·18당시 시민군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종배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후보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청 지키는 시민군 모두 계엄군 진입 알고 있었다

27일 새벽 "계엄군이 몰려온다" 가두방송 원고 직접 작성

그는 "27일 새벽 2시께 도청 안에 비상을 걸고 박영순과 이경희 두 여학생을 데모진압용 가스차에 태워 시민들에게 방송하도록 했다"면서 "계엄군 진입을 알리는 두 여학생의 가두방송이 나가자마자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새벽 2시 15분이었다"고 말했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손에서 총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광주 시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을 버리고 계엄군과 협상을 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는 "4가지의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그는 "광주 시민이 폭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구속된 학생·시민을 전원 석방할 것이며, 사망자뿐 아니라 부상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피해 보상과 치료를 약속하고, 장례식은 시민장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아직도 '희생자 시민장'을 치르지 못한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있다.

그는 "23일 도청에서 구용상 광주시장을 만나 27일 시민장을 치르기로 하고 준비를 하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혀 희생자의 넋을 제대로 달래주지 못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라도 희생자를 위한 시민장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 성과

차 부품 경량화 기술력 확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 경량화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매출 및 고용증대, World Class 300 선정되는 등 부품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역 자동차 주력 부품인 차체·샤시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경량화 산업으로 육성, 지속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300억원(국비 150억, 시비 100억, 민자 50억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전남본부 주도로 경량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비 인프라 구축, 기업 밀착형 지원을 실시했다. 이같은 지원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경량화 기술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먼저 기반 조성은 시험·평가·인증 장비 15종 21대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지역 19개 부품기업과 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4개 과제, 2017년 1개 과제, 올해 5개 과제 등 총 10개 과제를 잇따라 수행했다. 이를 통해 매출 증대 31억3000만원, 신규 고용 47명, 지식재산권 16건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지역 부품기업들의 기술이 완성차업계의 인정을 받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도 밝히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선정된 과제가 올해 12월 마무리되고, 지난 4월부터 신규 5개 과제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기업 매출과 고용 활성화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